

시내버스 준공영제 ‘밀빠진 독’

광주 시행 4년, 업체 10곳 중 7곳 자본잠식 부채 570억 무경쟁체제 속 자구노력 부족...市 재정 지원금에 의존

광주지역에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지 4년이 다 돼 가고 있으나 여전히 시내버스 업체 10곳 중 7곳이 자본잠식 상태이며, 이들 업체의 부채도 5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열악한 재무구조 탓에 업체가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 및 경영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무경쟁 체제’를 유지하며 광주시의 재정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시내버스 업체 10곳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지난해 말 287억8500만원에서 올해는 약 356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재정지원금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7곳의 시내버스 업체가 버스 100대 이하를 보유한 영세업체인데다 운송수입이 운송원가 상승에 미치지 못하고, 버스요금도 4년째 동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대한교통학회 호남·제주지회와 광주발전연구원이 주최한 도시교통정책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정하옥 박사는 “광주시의 재정지원금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고 업체의 경영여건이 점차 호전되고 있지만 버스업체의 상당수가 영세해 규모의 경

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영세업체든 대규모 업체든, 경영효율이 높은 것은 7곳의 시내버스 업체가 버스 100대 이하를 보유한 영세업체인데다 운송수입이 운송원가 상승에 미치지 못하고, 버스요금도 4년째 동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대한교통학회 호남·제주지회와 광주발전연구원이 주최한 도시교통정책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정하옥 박사는 “광주시의 재정지원금은 비교적 낮은 수준이고 업체의 경영여건이 점차 호전되고 있지만 버스업체의 상당수가 영세해 규모의 경

억5000만원에 그쳤으며, 기업이윤을 포함한 차익을 광주시가 지원했다. 그러나 광주시가 업체에 고정적인 이윤을 보장해주면서 업체들이 구조조정이나 자구노력, 업체 간 통합 등에 소극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정 박사는 “버스 준공영제의 성과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 요소가 운수업체의 재무건전성, 경영합리화 개선 수준 등인데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경영평가의 성과, 평가 항목 및 비중을 상향조정해 선의의 경쟁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도 내년부터 시내버스 업체들의 원가절감과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정비를 추진하고, 재무상태 관리·감독 강화 등에 나설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에 ‘책장 습격단’ 떴다

좋은 책 기증받아 이웃 돕기...피습자도 “유쾌한 경험”

지난 5일 광주시 북구 각하동 금호아파트에 ‘3인조 습격단’이 떴다. 이들이 노리는 건 책으로 가득 찬 ‘책장’이다. 목표물이 놓인 곳은 김용운(64)씨의 거실. 두 시간의 작전 끝에 습격단은 150여권의 책을 손에 넣었다. ‘공지영 컬렉션’이라고 불려도 좋은 정도로 많은 공

씨의 책과 이외수·은희경 등 유명 작가들의 책이 포함된 오늘 습격은 대성공. 책을 ‘탈린’ 김씨도, 목표물을 손에 넣은 습격단도 유쾌하고 즐거운 작전이었다. 지난해 6월 문을 연 아름다운 가게 헌책방 ‘아낌 없이 주는 나무’가 ‘생생 나눔-책장 습격기’를 시작했다

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기증받은 책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불우한 이웃을 돕고 있는 곳. 올 상반기에는 5000만원을 각계각층에 나눠줬다. ‘책장 습격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책을 기증받기 위해 재낸 묘안이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수고로움을 더하면 아무래도 좀 더 좋은 책을 내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한몫했다. 현재 책방에 꽂혀 있는 책은 약 2만5000여권. 고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책들도 있지만, 솔직히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팔려갈 기미가 거의 없는 책도 많다. 책방 단골손님이었던 김씨가 ‘제일 먼저 탈리는 영광을 얻고 싶다며 자



김용운씨 집을 찾은 헌책방 아낌 없이 주는 나무 ‘책장 습격단’이 책방으로 가져갈 책을 정리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아낌없이 주는 나무’ 발랄 아이디어 화제

원했다.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친 김씨는 책 판매대금이 좋는데 쓰이는 것도 의미있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내놓은 책을 누군가가 읽고 그 책에서 ‘값’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랐다. 습격단장을 통보받은 김씨는 책고르기 작업에 나섰다. ‘아라비안 나이트 전집’ 등 투자가 꽤 많았던 책도 있고, 솔직히 내놓기 아까운 책도 있었지만 책방으로 시집보낼 책을 고르는 일은 보람있었다. “은행강도단도 운전사가 잡혀야 성공한다”며 김씨는 앞으로 습격단의 ‘헌정공사’로도 활동할 예정이다. 습격기는 일주일에 한차례씩 진행된다. 현재 국회의원 김재균, 정반표 광주시립도서관장의 책장이 습격단의 작전 목록에 올라 있다. 습격단은 대학생 자원활동가로 꾸려졌다. 이날은 류사라(전남대 3년) 송선광(전남대 4년)씨가 함께 했다. 책방으로 가져갈 책을 묶고, 습격 대상자를 인터뷰하고, 생생한 습격기를 헌책방 홈페이지(cafe.naver.com/bsbooks.cafe)에 올리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의 몫이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신예정씨는 “책을 통해 사랑을 나누 주는 이들에게 감사하다”며 “자신의 서재를 습격당하고 싶다는 보통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062-655-897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국 첫 준공영제 주민감사 청구

광주 470명 “지원금 부담 지출 환수해야”

광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된 전국 최초로 주민감사가 청구돼 실제 감사로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국토해양부는 11일 “광주지역 주민 470명이 ‘광주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각종 지원금이 부당하게 지출됐으므로 이를 환수하라’는 취지로 주민감사를 청구해 오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국토해양부 주민감사심의위원회에서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 뒤 감사 착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청구인 대표인 이병훈 노무사는 “준공영제를 위해 매년 수백억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데 불구하고 버스업체들의 수익과 임금 지급 등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광주시도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청구이유를 설명했다. 청구인들이 제기한 문제점은 ▲광고수입금 부담지출 ▲관리 및 정비원에 대한 허위임금대상 작성 ▲고용유지지원금의 운송수입금 누락 ▲정규직 채용 관리감독 부재 ▲중형버스 운전원 처우 개선 미비 등이다. 하지만 광주시와 광주시서비스운송사업조합 측은 이 같은 감사청구 내용이 이미 논란이 돼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감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저우 아시안게임 오늘 개막...16일 열전

아시아의 스포츠 최대 축제인 제16회 아시안게임이 12일 밤 9시(한국시간) 광저우 주장(珠江) 하이신사(海心沙)에서 개막식을 열고 16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관련기사 18·19면> 오는 27일까지 진행될 이번 대회에는 45개국에서 역대 최대인 1만4454명의 선수단이 참가, 42개 종목에서 476개의 금메달을 놓고 격돌한다. 크리켓을 제외한 41개 종목에 역대 최대인 1013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한국은 금메달 65개 이상을 목표로 일 본을 제치고 4회 연속 종합 2위 달성을 노린다. 1982년 뉴델리 대회를 시작으로 7연패 독주중인 중국은 안방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사상 최초로 금메달 200개에 도전한다. 한편 주경기장이 아닌 광저우의 젯펄 주장(珠江)의 작은 섬 하이신사에서 열리는 개막식은 아시아게임 사상 처음으로 ‘수상 개막식’으로 진행된다. 국가별로 8명씩 보트를 타고 9.3km를 항해하며 입장하는 개막식 퍼레이드가 펼쳐지며, 한국은 로마자 알파벳 순서에 따라 16번째로 입장한다. 북한은 7번째로 개막식장에 들어서고 주최국 중국은 맨 마지막에 입장한다. /김여울기자 woor@kwangju.co.kr

G20정상 환율 막판 대타협 주목

오늘 ‘서울선언’ 채택

세계 경제질서의 새 판을 짤 제5차 G20(주요 20개국)정상회의가 11일 서울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막을 올렸다. <관련기사 3면> 선진국 밖에서 처음 치러지는 이번 회의가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을 향한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를 구축하는 밑그림을 ‘서울 선언’에 담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회의의 의장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영국, 독일, 미국, 중국, 브라질

정상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고 G20 의제의 사전 조율과 중재에 나서는 동시에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Shared Growth Beyond The Crisis)’이란 주제로 이날 오후 6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환영 리셉션과 업무 만찬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회의에는 이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胡锦涛) 중국 국가주석,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등 G20 회원국 정상 21명(유럽 연합 대표 2명 포함), 유엔 등 국제기

구 대표 7명 등 정상급 인사 33명과 배우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환율 갈등의 해법을 놓고 회원국 재무차관 및 세무과(교섭대표) 협의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정상들이 진일보한 해법을 도출해 내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상들은 이틀째인 12일에는 ▲세계 경제와 프레임워크 ▲국제금융기구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정 ▲개발 ▲금융규제 개혁 ▲에너지·반부패 등 5개 세션을 진행하며, 이 대통령은 그 결과를 담은 서울 정상선언을 오후 4시 공식 발표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www.kgrc.ac.kr
수시2차
신입생모집
2010.11.04~12.02
고려대학교 입학문의
061-330-7323-5

학교설립 56주년(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정시모집
가 군원사접수 12월 17일~22일
각대학원원사접수 11월 2일~23일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남부대학교 대학원 전기석·박사 신입생 모집
일반대학원 · 교육대학원 · 보건경영대학원
원사접수 11월 19일(금) 면접 11월 26일(금)
남부대학교 | 062-970-0040~7

HAPPINESS COUNTRY CLUB
www.happinesscc.com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해피니스CC로 초대합니다.
VIP 1차정회원
분양예정
(3억5,000만원)

해피 정회원 모집

- 위치: 전남 나주시 다도면 송학리 1219 번지
- 코스규모: 총 27홀 Par 108(전장 9,575m)
(회원제 18홀, 퍼블릭 9홀)
- 모집인원: 100명 ■ 분양금액: 1억
- 정회원 특전
1. 공동: 정회원 그린피 면제 /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혜택
2. 선택: A형, B형 중 택일
- A형: 지정회원(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1인 준회원대우, 정회원 동반 3인 그린피 할인혜택 (10% 전후)
- B형: 지정회원 미신청시 정회원 동반 3인 그린피 우대혜택 (20% 전후)
- 입회금 납부안내
1. 계약금 20% 납입 후 30일 이내 잔금완납 (단위: 만원)

구 분	입회금액	납입 방법	
		계약금	잔 금
해피정회원	10,000	2,000	8,000

2. 납입계좌
- 광주은행 001-127-012066 / 예금주: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광주은행 담보대출 70%선(신용등급에 따라 추가대출가능)

가입문의 Tel. 061-330-5001~5 Fax. 061-330-5009